



고진영 “세계 1위 위엄 보여주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한 고진영(25)이 세계랭킹 1위 사수에 나선다.

고진영은 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더콜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총 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줄곧 한국에 머물다 지난달 미국으로 건너간 고진영은 펠리컨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출전이다.

2020년 첫 출전 대회였던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공동 34위에 그친 고진영은 반등이 요긴한 시점이다.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세영(27)이 불과

4일 개막 LPGA VOA 클래식 출격

시즌 두번째 출전...반등 필요한 시점

이미림·이정은·박인비 등 우승 도전

0.41포인트 차이로 좁혀와 70주 넘게 지켜온 세계랭킹 1위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김세영이 VOA 클래식에는 출전하지 않기에 다시 격차를 벌일 기회가.

김세영은 이 대회에 이어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대비하느라 VOA 클래식은 건너뛴다.

고진영은 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시즌 최강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나서려면 VOA 클래식에 서 가능한 많은 포인트를 따야 한다.

상금랭킹 1위와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를 김세영에게 내준 박인비(32)도 두 부문 선두 탈환을 겨냥했다.

박인비는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준우승 이후 두 달 동안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US여자오픈 전초전인 VOA 클래식을 준비해왔다. 박인비는 VOA 클래식에서 2년 우승했다.

부진에 빠진 박성현(27)은 2018년 이후 두 번째 이 대회 정상에 노린다. ANA 인스피레이션을 제패하며 부활한 이미림(30)과 이정은(24), 유소연(30)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PGA 시즌 마지막 대회 주인공은?

마야코바 클래식 4일 개막

안병훈·강성훈·최경주 등 출격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미를 장식하는 대회가 3일부터 멕시코에서 펼쳐진다.

4~7일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마야코바 클래식(총 상금 720만 달러)은 2020년 PGA 투어의 마지막 정규대회다.

이후에는 11~13일 이벤트 대회인 QBE 숏아웃만 열릴 뿐, 내년 1월 7일 하와이에서 개막하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까지는 휴식기가 이어진다.

애초 출전을 예고했던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계획을 바꿔 휴식을 취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회엔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를 필

두로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토머스는 출전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흐름을 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2020~2021시즌 개막 이후 토머스는 9월 메이저 대회 US오픈 공동 8위에 오르고 10월 더CJ컵 공동 12위, 조조 챔피언십 공동 2위 등 좋은 상위권 성적을 내왔다.

최근 출전한 지난달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도 4위에 오르며 흐름을 잇고 있다. PGA 투어 홈페이지가 꼽은 이번 대회 '파워 랭킹' 1위도 단연 토머스다.

세계랭킹 12위 브룩스 켈카(미국)도 나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무릎과 허리 부상으로 공백을 겪은 뒤 10월부터 다시 대회에 나서기 시작한 켈카는 마스터스 공동 7위를 포함해 지난달 출전한 2개 대회에서 모두 톱

10에 들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대회를 1년 넘게 이어지는 우승 공백을 해소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그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해 7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세인트루즈 인 비타이셔널이었다.

이밖에 세계랭킹 13위 대니얼 버거, 19위 토니 피나우(이상 미국), 개최국 멕시코의 대표주자인 카를로스 오르티스, 아브라함 안세르 등도 출전한다.

지난해 버뮤다 챔피언십에서 5년 반 만에 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추가한 직후 마야코바 클래식까지 제패하며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토드(미국)는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2007년 시작한 이 대회에서 아직 한 선수가 2년 연속 우승한 적은 없다.

한국 선수로는 마스터스 준우승자 임성재(22)는 없지만, 안병훈(29), 강성훈(33), 이경훈(29), 최경주(50)가 출격해 2020년 '유종의 미'를 꼽는다.

2012년 이 대회 우승자 존 허(미국)와 2018년 준우승자 대니 리(뉴질랜드) 등 교포 선수들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020 전남모터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2020 전남모터페스티벌’ 튜닝카 부문에 출전한 차량들.

〈사〉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2020 전남모터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상설트랙에서 지난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150여대의 튜닝카가 선보인 튜닝카 선별대회와 트랙데이, jeep 자동차 오프로드 기물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전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참가 관계자들만 참석한 무관중으로 안전하게 진행됐다.

선별대회 심사위원으로는 이창호 ROOTS51 대표, 여인택 PEACHES 대표, 강희철 VIP SEDAN 대표, 한 대산 LOW STREET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튜닝카 선별대회는 베스트 튜닝카, 퍼포먼스, 베스트 커스텀 카, 베스트 스탠스 카, 베스트 VIP 스타일 등 5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베스트 튜닝카 부문은 방병덕(닛산 370Z)이,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조용하(아우디 R8)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박종호(도요타 수프라) 선수와 김준영(렉서스 LS400)이 각각 베스트 커스텀 카와 베스트 스탠스 카 부문의 영광을, 베스트 VIP 스타일 부문에서는 정민재(제네시스 G80)가 영광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주 출신 미국 대학 농구선수 유방암 딛고 감동의 코트 복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1년 8개월 만에 코트에 복귀한 선수가 나왔다.

AP통신은 1일 미국 ‘농구 명문’ 시러큐스대의 가드 티아나 망가카하야(25·호주)의 사연을 전했다.

2019년 6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망가카하야는 이후 8차례의 항암치료를 받고 1년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유방 절제술까지 두 차례 받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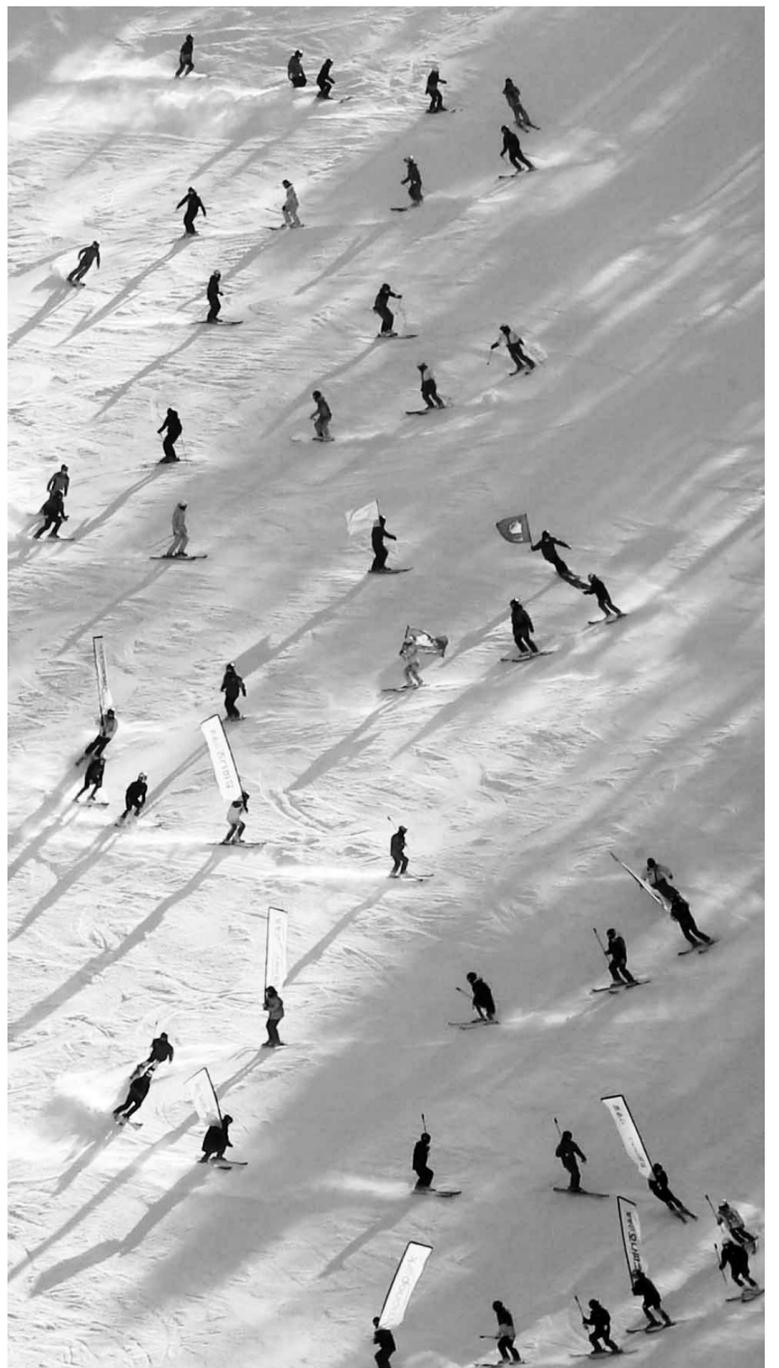
호주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망가카하야는 2013년 19세 이하 세계선수권에 호주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망가카하야는 호주 성인 국가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지만 왼쪽 가슴에 종양이 발견되면서 코트를 잠시 떠나야 했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올해 2월부터 팀 훈련에 복귀한 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와 원정 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2020~2021시즌 첫 경기에 선발로 나온 망가카하야는 36분을 뛰며 16점, 7리바운드, 4스틸, 3 어시스트로 팀의 50-39 승리를 이끌었다.

2019년 상반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615일 만에 치른 첫 공식 경기였다.

그는 “체육관 이동을 위해 버스에 올라타면서부터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며 “이런 날이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스키의 계절이 돌아왔다

1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에서 스키장 개장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지금 이 순간
진절을 찬양하라

다들 키드연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이웃사촌
4관	이웃사촌
5관	더 프롬
6관	도굴
9관	프리카기 데스데이

7관 씨네커풀 | 더 프롬,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프린세스 에마: 마법 책의 비밀

8관 씨네커풀 | 도굴, 진첫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초연 21회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 (목) ~ 27.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 (금) ~ 20.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 (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